

근로빈곤층의 정의에 따른 직업 배열의 탐색적 고찰*

최 옥 금**

(2009.5.26. 접수 / 2009.6.10. 1차수정 / 2009.6.15. 게재확정)

- 요약 -

본 연구는 근로빈곤층의 정의에 따른 특성 차이에 주목하여, 이들의 노동시장 진입 이후 직업 배열(Job Sequences)의 차이가 어떠한지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근로빈곤층을 취업빈곤층, 경활빈곤층, 비경활빈곤층으로 구분하고, 사건배열분석(Event Sequence Analysis)을 활용하여 일한 기간, 공백의 수와 그 기간, 직업의 수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회귀분석 및 분산분석을 통해 근로빈곤층의 정의에 따라 직업 배열에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남성 근로빈곤층은 근로빈곤층의 정의에 따라 일한 기간, 공백의 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여성 근로빈곤층은 근로빈곤층의 정의에 따라 일한 기간, 공백의 수 및 직업의 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취업빈곤층은 비경활빈곤층과 비교할 때 노동시

* 이 논문은 최옥금(2008)의 박사논문 중 일부를 재구성하여 다시 쓴 것이며, 2008년 추계 한국사회복지학회에서 발표된 것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학회에서 토론을 통해 논문의 부족한 점들을 지적해주신 상지대학교 류만희 교수님께 감사드린다.

** 한림대학교 BK21 박사후연구원(okkum@hanmail.net)

장에서 비교적 오랜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일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근로빈곤층의 정의에 따라 이들의 노동 경험에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며, 따라서 근로빈곤층의 특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 근로연계 복지의 목표와 대상의 재설정이 요구됨을 제시하는 것이다.

주제어: 근로빈곤층의 정의, 직업 배열, 노동 경험,
사건배열분석, 근로연계복지

1. 서론

경제위기 이후 한국의 빈곤과 관련된 연구 가운데 주목할 만한 것은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경제위기 이후 고용 불안정성의 증가와 같은 사회·구조적 변화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을 그 대상으로 포함한 정책적 변화라는 배경이 있다.

그런데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살펴보면, 근로빈곤층의 정의가 연구자에 따라 ‘근로 능력이 있는 빈곤층(이태진, 2003; 홍경준, 2003)’, ‘빈곤층 가운데 일정 기간 동안 노동시장에서 일하거나, 고용되어 있거나, 또는 그 기간 동안 구직 활동을 한 사람(노대명·최승아, 2004a, 최옥금, 2005; 홍경준, 2005)’, ‘취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곤한 사람(금재호, 2003)’ 등으로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하게 정의되는 근로빈곤층 각각의 특성이 어떻게 다른지, 또한 이렇게 다양하게 정의될 때의 문제는 없는지 논의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그러나 근로빈곤층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이들의 특성이 달라질 수 있고, 이에 따라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탈빈곤정책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근로빈곤층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근로빈곤층에 대한 정책 목표는 고용 전략(Employment Strategy)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고용 전략에는 두 가지 다른 관점이 있는데, 하나는 소득 증가에 초점을 맞춰 이들의 빈곤 탈출을 추구하는 ‘소득중점 목표(Income Goal)’이고 다른 하나는 근로소득의 가치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근로중점 목표(Work Goal)’이다(Blank, 1996; 홍경준, 2002)¹⁾. 만약 근로빈곤층을 ‘취

1) 소득중점 목표는 소득 이전보다 더 많은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고용 전략을

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곤한 사람들'로 정의하게 되면, 이들의 탈빈곤정책 방향은 이들이 빈곤을 탈출하기 위해 고용안정성과 어느 정도의 근로소득을 담보한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곧 '소득중점 목표'를 강조하게 될 것이다. 반면, 근로빈곤층을 '근로 능력이 있는 빈곤층'으로 정의하게 되면 비경제활동 상태인 빈곤층을 다수 포함하게 되므로, 이들이 신속하게 노동시장에 진입하도록 하는 '근로중점 목표'가 중요해진다.

이처럼 근로빈곤층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탈빈곤정책의 방향은 달라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상황이다. 실제로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대표적 근로연계복지인 자활사업에서도 정책의 대상이 되는 근로빈곤층의 정의 방식과 그 정책 방향에 관련된 혼선을 찾아볼 수 있다. 자활사업의 목표는 '근로 능력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적극적인 자활, 자립대책을 마련하여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탈빈곤정책을 추진하는 것(보건복지부, 2007)'이라 제시되어 자활사업의 '표명된 목표'는 '소득중점 목표'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자활사업의 운영은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 가운데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이들의 복지의존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자활사업에 참여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근로중점 목표'가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노대명 외, 2004b; 최옥금, 2005). 결과적으로 이러한 문제는 자활사업의 비효과성과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다²⁾. 따라서 다양하게 정의

중시한다. 이를 위해서는 빈곤선 이상의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의 창출 및 유지·개발이 필요하게 된다. 반면 근로중점 목표는 빈곤의 탓에서 탈피하도록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더 중시한다. 따라서 양질의 일자리 보다는 근로 경험을 제공하는 여러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강조한다(노대명·박찬임·강병구·구인회·이문국·이병희·이인재·이찬진·홍경준·황덕순·송민아·최승아, 2004b).

2) 보건복지부(2007)의 조사에 따르면 연도별 자활 성공률은 2001년 9.5%, 2002년 6.9%, 2003년 6.8%, 2004년 5.4%, 2005년 5.5%, 2006년 6%로 채 10%도 되지 않

되고 있는 근로빈곤층의 개념에 따라 이들의 특성이 어떻게 다른지 파악하고, 이를 통해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정책의 표적 대상 및 그 방향을 재설정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러한 문제 제기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는 근로빈곤층의 특성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근로빈곤층의 생애과정에서 나타나는 노동경험이 어떠한지 분석하고자 할 것인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앞서 언급한대로 근로빈곤층에 대한 정책은 고용 전략(Employment Strategy)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는 근로빈곤층의 특성, 특히 이들이 노동시장에서 어떠한 경험을 했는지에 따라 그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이들의 노동경험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들의 현재 노동시장 특성이나 최근 몇 년간의 경험이 아닌, 생애과정에서 나타나는 총체적이고 장기적인 노동경험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정태적 특성은 근로빈곤층의 노동경험을 적절히 설명하지 못하거나 제한적으로만 파악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최옥금, 2008). 따라서 이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한 이후에 어떠한 경험을 해 왔는지 장기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통해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 전략의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는 근로빈곤층의 개념을 구분하고, 이들의 생애과정에서 나타나는 노동경험을 직업 배열(Job Sequences)³⁾을 통해 분석·비교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탈빈곤정책에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하는 시론적인 성격을 갖는다. 이를 위해 먼저 2장에서는 다양한 근로빈곤층의 정의에 따른 이들의 특성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3장에서는 분석자료 및 연구대상, 연구방법을 제

는 것으로 나타나, 자활사업의 빈곤탈출 성과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3) 본 연구에서는 ‘직업 배열(Job Sequences)’을 노동시장 진입 이후 현재까지 한 사람의 노동경험을 지칭하는 것으로 활용한다. 직업 배열은 한 사람의 노동경험에서 총 일한 기간, 공백의 수 및 그 기간, 직업의 수 및 그 특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3장 분석방법에서 다룰 것이다.

시한다. 그리고 4장에서는 이러한 방법에 따라 분석된 결과를 제시하며,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분석결과를 종합하고 이를 통해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도록 한다.

2. 선행연구 고찰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근로빈곤층의 정의에 따른 노동경험 차이를 다룬 선행연구는 거의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는 근로빈곤층의 정의 방식을 살펴보고 이들의 개념에 따른 근로빈곤층의 현재 특성의 차이 및 근로빈곤층의 노동경험에 대한 논의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한다.

우선 가장 일반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근로빈곤층의 정의는 ‘근로’의 개념을 ‘근로 능력이 있는(Workable)’으로 해석하는 것이다(이태진, 2003; 홍경준, 2003; 이병희, 2005 등). 이는 주로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정책 관련 보고서에서 많이 활용되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조건부 수급자와 일반 수급자를 분류하는 기준으로 근로 능력의 유무를 활용한 것과 관련이 있다. 곧, 이러한 정의는 우리나라 공공부조 제도의 ‘정책적 지향’과 관련이 있다(노대명, 2004a).

두 번째는 ‘근로’의 개념을 ‘취업’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근로빈곤층은 ‘취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곤한 사람(Levitan · Gallo · Shpiro, 1993; 금재호, 2003; 김교성·최영, 2006 등)’으로 정의된다. 이를 ‘일하는 빈곤층(금재호, 2003)’ 또는 ‘취업빈곤층(노대명 외, 2004a; 홍경준·최옥금, 2005)’이라 칭하는데, 이러한 방식의 정의는 노동시장에 참여하여 임금을 받고 있어도 빈곤하다(Working, but Poor)는 점에서 ‘근로’의 개념이 가장 강화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최근 몇몇 연구자들이 근로빈곤층의 정의로 활용하는

접근 방식은, 근로빈곤층을 ‘빈곤 가구에 속한 사람들 가운데 적어도 반 년(1년에 27주) 동안 노동시장에서 일하거나 고용되어 있거나, 또는 그 기간 동안 구직 활동을 한 사람’이라고 정의하는 것이다(Klein, 1989; 최옥금, 2005; 홍경준, 2005). 흔히 이를 ‘경활빈곤층(노대명 외, 2004a; 홍경준·최옥금, 2005)’이라 부른다. 이렇게 정의할 경우 근로 능력이 있으면서 일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을 포함할 수 있으며, 다양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근로빈곤층 및 고용 상태가 자주 변하는 이들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개념이라 평가되기도 한다.

이렇게 근로빈곤층을 다양하게 되면, 이에 따라 이들의 현재 경제 활동상태의 구성에는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 첫 번째로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으로 정의하게 되면 현재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비경제활동 인구와, 근로 능력은 있지만 노동시장에 참여하여 빈곤을 탈출할 수 있을 정도의 소득을 충당하기 어려운 근로 능력 미약자가 많이 포함된다. 근로빈곤층의 정의에 따라 이들의 현재 특성을 비교하여 살펴본 홍경준·최옥금(2005)의 연구에 의하면, 이렇게 정의할 경우 비경활빈곤층의 비중은 무려 전체의 49.83%를 차지하게 된다. 다음으로 ‘취업빈곤층’으로 정의하면 이들 대부분은 판매·서비스직이나 단순노무직, 농어업 등에 종사하는 저임금 근로자이거나 영세 자영업자인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경활빈곤층’으로 정의할 경우 ‘취업빈곤층’으로 정의했을 때와 비교해서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 실업자의 비중이 꽤 나타나며, 주로 취업자와 영세자영업자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근로빈곤층의 노동경험을 총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현재 경제활동상태에서의 특성 뿐 아니라, 이들의 생애과정에서 노동경험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물론 근로빈곤층의 노동경험, 특히 이들의 경제활동 상태 및 고용

상태를 동태적으로 살펴본 선행 연구 결과들(노대명 외, 2004a; 이병희, 2005; 남춘호·이상록, 2006)을 통해 근로빈곤층의 노동경험을 이해할 수 있다.

먼저 근로빈곤층의 고용 상태 변화를 분석한 연구(이병희, 2005)에 따르면 근로빈곤층은 비빈곤층에 비해 취업 상태를 유지하는 비율이 낮았고, 취업 상태에 있던 근로빈곤층이 비경제활동 상태로 전환하는 비율이 높았다. 따라서 근로빈곤층은 실업을 유지하거나 실망실업자로 전환하는 비율이 높아, 고용 상태 변화가 매우 불안정함을 밝혔다. 또한 취업자에 국한하여 고용 상태 변화를 분석한 결과, 빈곤층에 속하는 상용직 근로자는 비빈곤층에 비해 상용직에 머무를 가능성이 낮은 반면, 실업이나 비경제활동 상태로 이동할 가능성은 높았다. 이와 마찬가지로 임시·일용직처럼 고용이 불안정한 근로자도 상용직 근로자로 전환할 가능성은 낮은 반면, 불안정한 고용 상태가 지속되거나 미취업으로 전환할 가능성은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자영업자와 무급 가족종사자의 경우에도 고용주나 상용직 근로자로 전환할 가능성은 낮은 반면, 미취업 상태로 전환할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근로빈곤층은 취업할 가능성이 낮고, 취업하더라도 경력 상승이 제한되며, 또 빈번하게 경제활동 상태가 변화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이를 분석한 다른 연구(노대명 외, 2004)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또한 남춘호 외(2006)의 연구에서도 대부분의 근로빈곤층은 노동의 상향 이동이 제한되어 있고, 불안정한 고용 상태에서 끊임없이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면서 2차 노동시장을 전전하는 하향 이동의 연쇄가 일어나, 노동을 통하여 빈곤을 탈출할 수 없다고 제시하였다. 곧 근로빈곤층은 임금근로자·비임금근로자·미취업의 상태를 반복적으로 경험하며, 임시·일용직처럼 불안정한 일자리를 중심으로 취업과 실업을 반복적으로 경험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에서는 첫째, 근로빈곤층의 개념에 따른 노동 경험을 분석하지 않았고, 둘째, 근로빈곤층의 노동경험이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생애과정에서의 노동경험이 아닌, 지난 몇 년간의 경험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근로빈곤층의 정의에 따라 이들이 노동시장 진입 이후 경험한 구체적인 사건들 — 노동시장에서 일한 기간, 일자리 경력이 중단된 경우와 이 기간, 경험한 일자리의 수 및 그 특성 — 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더 총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3. 분석방법

1) 분석자료 및 자료구성

본 연구는 근로빈곤층의 정의에 따른 직업 배열을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의 직업력 정보를 갖고 있는 자료가 요구된다. 따라서 개인의 노동시장 진입 이후 직업력 정보를 갖고 있는 한국노동패널 직업력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기타 가구 소득 및 개인 특성과 관련된 정보는 가구 자료와 개인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한편 연구에서 필요로 하는 데이터셋(Dataset)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구 자료, 개인 자료, 직업력 자료에 산재되어 있는 변수들을 취합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노동패널의 가구 자료 가운데 소득에 대한 문항이 지난해의 소득을 질문한 것임을 고려하여, 8차 개인 자료 및 가구 자료에서 분석에 활용할 변수를 취한 뒤, 소득에 관한 자료는 9차 가구 자료에서 추출하였다. 이를 위해 9차 가구 자료에서 소득 자료를 취합하여 빈곤선 이하에 속한 가구를 추출하고, 이를 8차 가구 자료와 취합하였다. 이후 8차 개인 자료에서 본 연구에서 정의한 근로빈곤층을 추출한 뒤 이를 가구 자료와 취합하고,

다시 이것을 8차 직업력 자료와 취합하였다.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 셋 가운데 본 연구에서 활용할 직업 정보가 아예 없는 사례와, 일자리의 시작 년도와 종결 시점이 정확하지 않거나 무응답인 경우, 그리고 정보의 값이 논리적이지 않은 사례들을 제외하였다.

이렇게 하여 만들어진 데이터셋(Dataset)은 상태별 지속기간(Episode Data)의 형태로 자료가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관심을 갖는 직업 배열을 분석하려면 자료의 구조를 상태 배열 형태로 바꾸어야 한다. 여기에서는 TDA(Transitional Data Analysis)를 활용하여 이를 수행하였으며, 시간의 단위는 1년으로 상정하였다. 따라서 최종 데이터셋은 TDA를 통해 직업의 각 배열 형태(Sequence Data)로 구성된 자료이다⁴⁾.

2) 변수측정

(1) 연구대상

연구대상인 근로빈곤층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우선 ‘빈곤’을 측정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근로빈곤층이 빈곤의 진입과 이탈이 잦으며, 빈곤을 벗어나더라도 대부분 차상위계층에 머문다(구인회, 2002)는 점과,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자활사업에서 그 대상을 차상위계층까지 포함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최저생계비 120%를 절대적 빈곤선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다음으로 근로빈곤층의 측정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근로빈곤층이 합의된 정의 없이 연구자에 따라 ‘근로 능력이 있는 빈곤층’, ‘경활빈곤층’, ‘취업빈곤층’으로 정의되고 있다는 점에 주

4) 상태별 지속기간 자료의 형태는 분석 대상이 어떤 상태에 머무르는 기간을 중심으로 자료가 구성되어 있는 반면, 상태 배열 자료는 각 시점별로 상태를 나타내는 변수의 배열로 자료가 구성되어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한준(2001, 2002), 최옥금(2008)을 참고하라.

목하였다. 이때 ‘근로 능력이 있는 빈곤층’이 가장 포괄적인 개념이고 ‘경활빈곤층’, ‘취업빈곤층’이 그 안에 포함되므로, 분석을 위해 이들을 서로 겹치지 않게 구분하였다⁵⁾.

먼저 근로 능력이 있는 빈곤층을 구분하는 방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근로능력자를 정의하는 방식을 활용하여 심신장애 및 노령인 경우와 학업 및 군복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였다. 다음으로 근로빈곤층의 고용 상태가 자주 변화하는 데 주목하여, 이들의 ‘고용 기간과 노동시장의 지위’를 반영하였다. 따라서 ‘지난 1년 동안’의 기간⁶⁾을 적용하여, 현재 취업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빈곤층을 ‘취업빈곤층’으로, ‘지난 1년 동안 노동시장 관련 행위를 한 번이라도 경험한 빈곤층’을 ‘경활빈곤층’으로 정의하였다. 곧 ‘경활빈곤층’의 경우 현재 취업 상태는 아니지만, 지난 1년 동안 취업 상태에 있었거나 구직 활동을 한 경우를 모두 포함하며, 마지막으로 ‘비경활빈곤층’은 현재에도 취업 상태가 아니며, 지난 1년 동안에도 취업 상태를 경험하지 않았고 구직 활동도 하지 않은 빈곤층으로 정의하였다⁷⁾. 따라서 연구 대상은 최종적으로 ‘비경활빈곤층’, ‘경활빈곤층’,

-
- 5) 이때 취업빈곤층은 ‘현재’의 기준으로, 경활빈곤층과 비경활빈곤층은 ‘지난 1년’을 기준으로 개념 정의하였다는 점에서 동일한 기간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첫째, 취업빈곤층의 개념은 현재 취업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며, 이들에게도 ‘지난 1년’의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경활빈곤층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경활빈곤층의 경우 ‘현재’의 시간을 적용하게 되면 전체 케이스 수가 매우 적다는 문제가 있었다는 점에서 이러한 문제는 불가피했음을 밝힌다.
- 6) 물론 본 연구의 대상이 근로빈곤층이므로, 연구 기간 동안 근로빈곤층이었던 사람들을 모두 대상으로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이다. 그러나 패널자료를 연결해서 활용할 경우 사례가 누락되기도 하며, 그렇게 누락된 사례의 대부분이 빈곤층이라는 문제가 있다. 또한 근로빈곤층의 경제활동 상태가 자주 변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의할 경우 근로빈곤층의 하위 범주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것을 고려하여 ‘지난 1년 동안’의 기간을 적용한다.
- 7) 이와 같이 ‘비경활빈곤층’을 정의하게 되면, 가사 및 육아 때문에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못하는 여성들도 이에 포함된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연구(이상은, 2005; 이병희, 2005 등)에서는 근로 능력이 있는 빈곤층을 정의할 때, 가사나 육

‘취업빈곤층’으로 구분되며, 개념적으로는 ‘근로 능력이 있는 빈곤층’에서 ‘경활빈곤층’을 뺀 부분은 ‘비경활빈곤층’, ‘경활빈곤층’에서 ‘취업빈곤층’을 뺀 부분은 ‘경활빈곤층’을 의미한다. 한국노동패널을 활용한 세부적인 근로빈곤층의 정의는 <표 1>에서 정리한 바와 같으며, 각각의 개념은 서로 겹치지 않는다.

<표 1> 한국노동패널을 활용한 근로빈곤층의 조작적 정의

근로빈곤층	정 의
비경활빈곤층	군복무와 학업 때문에 미취업인 사람을 제외한 사람* 가운데 현재 비취업 상태이며, ‘작년 연간 근로소득’이 없고 지난 1년 동안 구직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경우. 곧 근로 능력이 있으나 지난 1년 동안 일과 관련한 행위를 하지 않은 사람
경활빈곤층	현재 취업 상태는 아니지만 ‘작년 연간 근로소득’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와 지난 1년 동안 구직 활동을 했다고 응답한 경우. 곧 지난 1년 동안 노동시장에서 일했거나 구직 활동을 한 경험이 있는 사람
취업빈곤층	현재 취업 상태에 있는 빈곤층

한편, 모든 연령대를 연구 대상으로 포함하게 되면 이들의 직업 배

아 때문에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못하는 여성들을 제외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사회복지서비스와 같이 적절한 정책 지원이 제공된다면 충분히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잠재적인 노동시장 참여자라고 간주할 수 있다. 또한 가구 상황 때문에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못하는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여러 연구들에서 이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하려는 욕구가 매우 높다는 것을 지적한 바, 본 연구에서는 이들을 연구 대상에 포함시키고자 한다.

열을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고 비교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20~30대의 경우 아직 직업 배열이 충분히 진행되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으며, 65세 이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정의하는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40세 이상부터 65세 미만까지를 연구 대상으로 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여성은 남성과 다른 특성 때문에 남성과는 다른 직업 배열이 나타날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실제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및 노동 경험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취업 여성의 절반 이상이 결혼과 함께 노동시장에서 퇴장할 뿐만 아니라 결혼을 기점으로 고용 상태가 다양하게 분화된다(김영옥, 1998). 본 연구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여성과 남성을 구분하여 분석하도록 한다.

(2) 일자리 측정

본 연구에서는 일자리 변환을 살펴보기 위해 활용하는 변수로 ‘직업’ 변수를 활용하였는데, 이는 직업이 근로빈곤층의 직업 배열 차이를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⁸⁾.

한편 한국노동패널자료에서는 통계청의 표준직종분류표를 활용하여, ① 입법공무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② 전문가 ③ 기술공 및 준전문가 ④ 사무 종사자 ⑤ 서비스 종사자 ⑥ 판매 종사자 ⑦ 농업 및 어업 숙련 종사자 ⑧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⑨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⑩ 단순노무 종사자 ⑪ 직업군인 ⑫ 비해당(무직)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이를 따르되 직업군인 및 분류 불

8) 임금은 일자리의 질을 보여주는 기준 가운데 하나인데, 산업과 직업별로 구분하여 볼 때 산업별 임금 격차보다 직종별 임금 격차가 더 크다. 또한 임시·일용직과 같은 종사상 지위는 직업력의 회상 자료에서 결측치가 많이 발생하여 실제 분석 시 활용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직업을 활용하여 일자리 변화를 살펴볼 것이다.

가능한 직업을 묶고, 일자리가 없는 경우 공백으로 처리하여 분석하도록 하겠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와 같이 경력의 일부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경력 전체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자 할 경우, 사건배열분석(Event Sequence Analysis)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으로 제시된다 (Abbot, 1983; Abbot and Tsay, 2000; 한준·장지연, 2000; 한준, 2001, 200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건배열분석을 통해 근로빈곤층의 직업 배열을 분석할 것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 활용할 한국노동패널자료의 직업력 자료는 상태별 지속기간(Episode Data)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TDA(Transitional Data Analysis: 이하 TDA)를 활용하여 이를 상태 배열 형태(Sequence Data)로 전환하였고, 이를 통해 연구 대상이 15세 이후부터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종사한 일자리의 직업 배열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TDA에서 보여주는 정보는 각 개인이 15세 이후 노동시장에 진입할 때부터 현재까지 노동시장에서 일한 기간, 공백의 수 및 그 기간, 직업의 수 및 그 특성에 대한 원자료(Raw Data)이다⁹⁾. 그러므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재분석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이와 관련하여, 사건배열분석에 제기되는 여러 비판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를 통해서 현상을 ‘기술’할 수 있지만, 분석 결과를 ‘검증’

9) 물론 노동시장에 진입한 연령은 개인별로 다르기 때문에, 시작 시점은 각각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시작 연령의 기준으로 15세를 활용하였기 때문에 15세 이후에 노동시장에 진입한 사람들의 경우 노동시장 진입 연령이 시작 연령이 되며, 15세 이전에 노동시장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경우 15세를 기준으로 좌측 절단(left censoring)된다.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Wu, 2000). 이러한 문제 때문에 사건배열분석을 수행한 선행 연구(Abbott and Hrycak, 1990; Sabherwal and Robey, 1993, 1995; Han and Moen, 1999; Abbot and Tsay, 2000에서 재인용)에서도 이를 실시한 뒤 검증 가능한 분석을 시도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도 이를 다시 수행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건배열분석을 통해 도출된 근로빈곤층의 각 직업 배열에 대한 원자료를 통해 기술 통계를 실시하여 이들의 일한 기간, 공백의 수 및 그 기간, 직업의 수 빈도 및 평균을 살펴보았다. 둘째, 근로빈곤층의 각 정의—취업빈곤층, 경찰빈곤층, 비경찰빈곤층—에 따른 직업 배열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근로빈곤층의 직업 배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연령과 교육년수를 통제 변수로 투입¹⁰⁾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회귀분석의 전제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4. 분석결과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최종 데이터셋에 포함된 대상은 434명이다. 이 가운데 남성은 207명으로 이 가운데 취업빈곤층은 144명으로서 남성 전체의 69.6%, 경찰빈곤층은 34명으로 16.4%, 비경찰빈곤층은 29명으로 14%를 차지하였다. 여성은 모두 227명이 연구 대상에 포함되

10) 연령은 이들의 노동경험이 얼마나 길고 짧은지를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통제 변수라 할 수 있다. 40대와 60대는 노동시장에서 일한 총 기간에 서로 차이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각 근로빈곤층의 정의에 따른 직업 배열을 비교하려면 연령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육년수도 일한 기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를 통제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물론 건강상태와 같은 변수들도 고려할 필요가 있으나, 한국노동패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건강상태는 현재나 지난 몇 년간의 건강인데 반해, 여기서 분석하는 직업 배열은 생애주기에서의 노동경험이므로 분석에서는 활용하지 않는다. 또한 모든 회귀분석 실시 전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가 있는지 미리 살펴보았으며,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밝힌다.

었는데, 이 가운데 취업빈곤층은 109명으로서 여성 전체의 48%, 경활빈곤층은 28명으로서 12.3%, 비경활빈곤층은 90명으로서 39.6%를 차지하였다. 남성과 여성을 비교하면 취업빈곤층은 남성이 여성에 비해 20% 이상 높았고, 경활빈곤층의 비중도 5% 가량 높게 나타나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취업빈곤층과 경활빈곤층의 비중은 남성이 더 높았다. 반면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비경활빈곤층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25%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남성이 여성보다 더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에는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여 이들의 직업 배열을 일한 기간, 공백의 수와 그 기간, 직업의 수를 살펴보고자 한다.

1) 남성 근로빈곤층 정의에 따른 직업 배열의 비교

(1) 일한 기간

먼저 근로빈곤층의 정의에 따라 남성 근로빈곤층이 15세 이후 노동시장에서 일했던 총 기간의 평균을 비교하도록 한다. 분석결과를 보면 우선 전체를 기준으로 할 때 취업빈곤층의 일한 기간이 23.49년으로 가장 길었으며, 경활빈곤층이 21.50년, 비경활빈곤층이 19.62년으로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남성 근로빈곤층의 정의에 따른 평균 일한 기간

(단위: 년)

근로빈곤층의 정의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취업빈곤층	144	23.49	8.285	.690
경활빈곤층	34	21.50	7.337	1.258
비경활빈곤층	29	19.62	9.503	1.764
전체	207	22.62	8.399	.583

그렇다면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가? 다시 말해, 근로빈곤층의 정의에 따라 이들이 일한 기간에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는가? 이를 살펴보기 위해 연령과 교육년수를 통제한 뒤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비경활빈곤층을 기준으로 할 때 취업빈곤층을 나타내는 근로빈곤층 더미1과 경활빈곤층을 나타내는 근로빈곤층 더미2가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미하였다. 취업빈곤층의 β 값은 .260이었고, 경활빈곤층의 β 값은 .156으로서, 취업빈곤층과 경활빈곤층 모두 비경활빈곤층보다 일한 기간이 길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연령과 교육년수를 통제할 때 취업빈곤층과 경활빈곤층이 비경활빈곤층보다 노동시장에서 더 오래 일했다는 것을 보여주며, 남성 근로빈곤층의 정의에 따라 노동시장에서 일한 기간에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을 제시한다.

<표 3> 남성 근로빈곤층의 정의에 따른 일한 기간에 관한 회귀분석 표

변수		β	S.E	t-value
근로빈곤층 더미1	(기준: 비경활빈곤층) 취업빈곤층	.260***	1.253	3.771
근로빈곤층 더미2	경활빈곤층	.156*	1.539	2.290
통제변수	연령	.588***	.067	11.087
	교육년수	-.214***	.110	-4.011
	상수	-	4.128	-3.621
F-Test	48.703***			
R square	.491			

*: $p < .05$, **: $p < .01$, ***: $p < .001$

(2) 직업 배열에서의 공백 분포

다음으로 남성 근로빈곤층의 정의에 따라 직업 배열에서 경력이

단절되는 공백의 수 및 그 기간을 살펴보도록 한다. 일반적으로 직업 배열에서 경력의 단절은 직업을 이동하면서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한준, 2001). 그러나 근로빈곤층은 취업과 실업 및 비경활 상태를 반복하는 특성을 갖기 때문에(Schiller, 2001), 이들의 직업 배열에서 공백의 수와 그 기간은 노동경험의 불안정성을 보여주는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각 정의에 따라 공백의 수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빈도를 살펴해보았다. 전체적인 경향은 취업빈곤층에서 경활빈곤층, 비경활빈곤층일수록 공백 수의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평균으로 살펴보면 취업빈곤층이 1.18로 가장 낮고, 경활빈곤층이 1.38, 비경활빈곤층이 1.76으로 나타나, 취업빈곤층에 비해 경활빈곤층이, 또한 경활빈곤층에 비해 비경활빈곤층이 공백의 수가 더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취업빈곤층에서 경활빈곤층으로, 경활빈곤층에서 비경활빈곤층으로 갈수록 직업 배열에서 불안정한 경험을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이러한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연령과 교육년수를 통제 변수로 투입한 뒤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회귀분석의 전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 분산분석을 실시¹¹⁾한 결과, F값이 3.410으로 유의확률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여 근로빈곤층의 정의에 따른 공백의 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렇다면 근로빈곤층의 각 개념 가운데 어떤 집단 사이에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일까? 이를 알아보기로 다중비교를 실시한 결과, 취업빈곤층과 비경활빈곤층 사이의 평균 차이가 .578로 $p < .05$ 수

11)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 표준화 오차의 분포 및 정규확률플롯(p-p plot)을 통해 모형의 정규성을 살펴본 결과 모형이 정규성의 전제를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판단되어, 다시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산분석을 할 때 모형의 등분산 가정을 충족하는지 살펴본 결과, 유의확률 .074로 등분산 가정을 충족함을 확인하였다.

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곧, 취업빈곤층은 비경활빈곤층 보다 공백의 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나, 공백의 수를 기준으로 할 때 취업빈곤층이 비경활빈곤층 보다 안정적인 노동경험을 했다고 제시할 수 있다.

<표 4> 남성 근로빈곤층의 정의에 따른 공백의 수

(단위: 개수)

공백의 수	취업빈곤층		경활빈곤층		비경활빈곤층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0	42	29.2	5	14.7	5	17.2
1	55	38.2	17	50.0	10	34.5
2	33	22.9	8	23.5	5	17.2
3	8	5.6	3	8.8	6	20.7
4개 이상	6	4.2	1	2.9	3	10.3
평균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공백의 수	1.18	1.069	1.38	1.045	1.76	1.354
전체	144		34		29	
평균제곱(자유도)/F 값			4.189(2)/3.410*			

*: $p < .05$, **: $p < .01$, ***: $p < .001$

한편, 공백의 수가 같더라도 그 기간이 길수록 그만큼 불안정한 노동경험을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¹²⁾. 따라서 공백의 수 뿐 아니라 그 기간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근로빈곤층의 정의에 따라 공백 기간의 빈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본 결과, 취업빈곤층에서 경활빈곤

12) 여기서 공백 기간은 이들의 직업 배열에서 나타나는 공백의 총 기간을 의미한다. 곧 현재 50세인 사람이 25~30세까지 일하다가 31~33세까지 실업 상태였다고 가정하자. 이후 34~45세까지 일하고 다시 46~48세까지 비경활 상태에 머물다가 49세부터 현재까지 일하고 있다면, 이 사람의 공백 기간은 6년이다.

층, 비경활빈곤층으로 갈수록 공백 기간의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평균을 통해 살펴본 결과, 각 근로빈곤층의 정의에 따른 공백 기간은 취업빈곤층과 경활빈곤층이 약 3년 정도로 나타났으나 비경활빈곤층은 평균 4.72년으로 더 길었다. 앞서 살펴본 공백의 수와 마찬가지로, 이를 근거로 비경활빈곤층이 취업빈곤층과 경활빈곤층보다 불안정한 노동경험을 했다고 설명할 수 있다.

<표 5> 남성 근로빈곤층의 정의에 따른 공백의 기간 빈도
(단위: 개수)

공백 기간	취업빈곤층		경활빈곤층		비경활빈곤층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0	42	29.2	5	14.7	5	17.2
1	21	14.6	9	26.5	4	13.8
2	22	15.3	7	20.6	3	10.3
3	15	10.4	4	11.8	5	17.2
4	10	6.9	2	5.9	2	6.9
5~10년 미만	24	16.7	6	17.6	6	20.7
10년 이상	10	6.9	1	2.9	4	13.8
평균 공백 기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3.05	3.873	2.79	2.739	4.72	5.756
전체	144	100	34	100	29	100
자유도/통계량			2/1.356			

*: p<.05, **: p<.01, ***: p<.001

그렇다면 이러한 결과가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는 지 살펴보자. 이 또한 연령과 교육년수를 통제 변수로 투입하여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으나, 회귀분석의 전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회귀분석식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 근로빈곤층의 각 정의에 따라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¹³⁾. 분석 결과, 근로빈곤층의 정의에 따른 공백 기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 남성 근로빈곤층의 각 정의에 따라 공백의 기간에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지금까지 남성 근로빈곤층의 정의에 따라 직업 배열의 단절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공백의 수와 그 기간을 통해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공백의 수를 기준으로 할 때 취업빈곤층과 비경활빈곤층 사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을 확인하였는데, 비경활빈곤층보다 취업빈곤층의 공백 수가 적었다. 그러나 공백의 기간에 있어서는 남성 근로빈곤층의 각 정의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3) 직업의 전환

다음으로 근로빈곤층의 정의에 따라 직업의 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볼 것이다. 여러 직업을 경험할수록 한 가지 직업을 지속하여 습득할 수 있는 기술이나 경험을 축적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노동경험을 한 사람일수록 직업 배열에서 한 가지 직업을 오랫동안 지속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직업의 수가 많을수록 노동시장에서 불안정한 일자리를 경험했다고 제시할 수 있다. 먼저 남성 근로빈곤층의 정의에 따라 직업의 수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본 결과, 직업의 수가 1개일 때의 비중은 취업빈곤층이 경활빈곤층과 비경활빈곤

13) 이 모형 역시 연령과 교육년수를 통제변수로 투입하고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회귀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 표준화 오차의 분포 및 정규확률플롯(p-p plot)을 통해 모형의 정규성을 살펴보았는데, 이러한 전제를 충족시킨다고 보기 어려워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한편 분산분석 시 등분산 검정 결과, 유의확률 .039로 등분산 가정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분산일 경우 실시하는 Welch와 Brown-Forsythe 검정을 실시하였다.

층보다 더 낮게 나타나지만, 직업의 수가 많아질수록 취업빈곤층보다 경활빈곤층과 비경활빈곤층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경향은 그리 뚜렷하지 않다. 평균으로 살펴본 결과도 취업빈곤층은 평균 직업 수가 2.33개, 경활빈곤층은 2.38개, 비경활빈곤층은 2.34개로서 각 정의에 따라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6> 남성 근로빈곤층의 정의에 따른 직업 수의 빈도

(단위: 개수)

직업의 수	취업빈곤층		경활빈곤층		비경활빈곤층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1	35	24.3	9	26.5	8	27.6
2	52	36.1	13	38.2	10	34.5
3	37	25.7	4	11.8	6	20.7
4	16	11.1	6	17.6	3	10.3
5개 이상	4	2.8	2	5.9	2	6.9
평균 직업 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2.33	1.090	2.38	1.231	2.34	1.203
전체	144	100	34	100	29	100
평균제곱(자유도)/F 값			.033(2)/.026			

*: $p < .05$, **: $p < .01$, ***: $p < .001$

그렇다면 통계적으로 분석한 결과는 어떻게 나타날까? 이를 위해 연령과 교육년수를 통계 변수로 투입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회귀분석의 전제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회귀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 다시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¹⁴⁾. 분산분석 결과 F값

14)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 표준화 오차의 분포 및 정규확률플롯(p-p plot)을 통해 모형의 정규성을 살펴본 결과 모형이 정규성의 전제를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판단되어, 다시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산분석을 할 때 모형의 등분산 가정을

이 .026으로 나타나, 남성 근로빈곤층의 정의에 따른 직업 수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¹⁵⁾.

2) 여성 근로빈곤층 정의에 따른 직업 배열의 비교

(1) 일한 기간

먼저 각 정의에 따라 여성 근로빈곤층이 15세 이후 노동시장에서 일했던 총 기간의 평균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여성 근로빈곤층의 정의에 따른 일한 기간은 경활빈곤층이 13.64년으로 취업빈곤층의 12.45년보다 1년 정도 긴 반면, 비경활빈곤층은 10.23년 정도로 약간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 비경활빈곤층이 취업빈곤층과 경활빈곤층보다 노동시장에서 일한 기간이 짧다는 것을 뜻한다.

<표 7> 여성 근로빈곤층의 정의에 따른 평균 일한 기간

(단위: 년)

근로빈곤층의 정의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취업빈곤층	109	12.45	7.99	.765
경활빈곤층	28	13.64	9.17	1.734
비경활빈곤층	95	10.23	6.90	.728
전체	227	11.71	7.80	.518

충족하는지 살펴본 결과, 유의확률 .476으로 등분산 가정을 충족함을 확인하였다.

- 15) 한편, 근로빈곤층의 정의에 따라 직업 배열에서 이들이 일했던 직종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 근로빈곤층의 정의에 따라 이들의 특성에서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근로빈곤층과 비빈곤층의 직업 배열을 비교한 최옥금(2008)에 따르면 근로빈곤층은 비빈곤층과 비교할 때 관리자, 전문가나 준전문가, 사무 종사자와 같은 안정적인 직종에서 일했던 비중과 일한 기간에서의 비중이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남성 근로빈곤층은 비빈곤층에 비해 생애과정에서 불안정한 일자리에 오래동안, 자주 일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분석할 때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낼까? 이를 살펴보고자 연령과 교육년수를 통제 변수로 투입하고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8> 여성 근로빈곤층의 정의에 따른 일한 기간에 관한 회귀분석 표

변수		β	S.E	t-value
근로빈곤층 더미1	(기준: 비경활빈곤층) 취업빈곤층	.202**	1.075	2.933
근로빈곤층 더미2	경활빈곤층	.156*	1.588	2.324
통제 변수	연령	.187*	.078	2.591
	교육년수	-.208**	.143	-2.963
	상수	-	4.729	.518
F-Test	8.779***			
R square	.137			

*: $p < .05$, **: $p < .01$, ***: $p < .001$

분석 결과, 비경활빈곤층을 기준으로 할 때 취업빈곤층을 나타내는 근로빈곤층 더미1과 경활빈곤층을 나타내는 근로빈곤층 더미2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취업빈곤층의 β 값은 .202였으며, 경활빈곤층의 β 값은 .156으로 모두 비경활빈곤층보다 일한 기간이 길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러한 결과는 비경활빈곤층을 기준으로 할 때, 취업빈곤층과 경활빈곤층이 노동시장에서 더 오랜 기간 일했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여성 근로빈곤층은 현재의 경제활동 상태에 따라 노동시장에서 일한 기간에 차이가 나타나며, 비경활빈곤층은 취업빈곤층, 경활빈곤층과 구분되는 집단이라 제시할 수 있는 것이다.

(2) 직업 배열의 공백 분포

여성은 생애주기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경력이 단절되는 경우가 많다¹⁶⁾. 여기에서는 이를 직업 배열에서의 공백의 수 및 그 기간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각 근로빈곤층의 정의에 따라 공백이 얼마나 자주 나타나는지 살펴본 결과, 전체적인 빈도의 경향 뿐 아니라, 평균을 통해 살펴 보아도 취업빈곤층이 1.26개, 경활빈곤층이 1.39개, 비경활빈곤층이 0.68개로, 경활빈곤층의 공백의 수가 가장 많고, 취업빈곤층, 비경활빈곤층의 순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취업빈곤층의 공백 수가 가장 적게 나타난 남성 근로빈곤층의 경향과는 다른 것이다. 앞선 결과에서 남성 근로빈곤층은 노동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일하였으며, 따라서 직업 배열에서 공백의 수가 많다는 것은 일자리 경험이 불안정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로 활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여성은 남성과 달리 생애주기에 따라 노동 공급이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해석하기 어렵다. 여성이 공백의 수가 적게 나타나는 것은 이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했다가 이후 다양한 생애주기적인 요인 때문에 노동시장에서 퇴장한 뒤 노동시장에 재진입하지 않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일한 기간이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나는 비경활빈곤층의 공백이 적게 나타나는 것이 그 예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여성의 경우 공백의 수가 적은 것은 그만큼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16) 여성의 동태적 노동공급에 대해 분석한 김영옥(2002)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여성들은 결혼이나 출산보다는 자녀양육으로 인해 노동공급이 중단된다고 한다. 또한 여성의 노동공급은 단순히 생애주기적인 요인보다는 학력, 기존 일자리의 직종, 종사상 지위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에, 여성의 직업 배열 공백을 단순히 생애주기로 설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더구나 본 연구의 직접적인 분석을 통해 이를 확인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석은 조심스럽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점을 밝힌다.

<표 9> 여성 근로빈곤층의 정의에 따른 공백의 수 빈도

(단위: 개수)

공백의 수	취업빈곤층		경활빈곤층		비경활빈곤층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0	29	26.6	4	14.3	47	52.2
1	39	35.8	15	53.6	28	31.1
2	28	25.7	4	14.3	12	13.3
3	10	9.2	4	14.3	3	3.3
4	3	2.8	1	3.6	0	0
평균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공백의 수	1.26	1.040	1.39	1.031	.68	.832
전체	109	100	28	100	90	100
평균제곱(자유도)/F값			10.209(2)/11.040***			

*: p<.05, **: p<.01, ***: p<.001

그렇다면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분석할 때에도 유의미하게 나타나는가? 이를 살펴보고자 연령과 교육년수를 통제 변수로 투입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모형이 회귀분석의 전제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판단되어, 다시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¹⁷⁾. 분석결과, F값이 11.040으로 유의확률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여, 근로빈곤층의 정의에 따라 공백의 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후 근로빈곤층의 각 개념 가운데 어떤 집단에서 차이가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다중비교를 실시한 결과,

17)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 표준화 오차의 분포 및 정규확률플롯(p-p plot)을 통해 모형의 정규성을 살펴본 결과 모형이 정규성의 전제를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판단되어, 다시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산분석을 할 때 모형의 등분산 가정을 충족하는지 살펴본 결과, 유의확률 .160으로 등분산 가정을 충족함을 확인하였다.

취업빈곤층과 비경활빈곤층, 경활빈곤층과 비경활빈곤층 사이의 평균 차이가 각각 .579, .715로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는 비경활빈곤층이 취업빈곤층과 경활빈곤층보다 공백의 수가 적은 것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앞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비경활빈곤층이 취업빈곤층과 경활빈곤층보다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기간이 짧은 것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공백의 기간을 살펴보자. 비경활빈곤층은 현재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므로, 이전에 노동시장에 참여했다라도 이후 다시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일을 하다가 그만두고 다시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취업빈곤층과 경활빈곤층은 공백 기간이 더 길게 나타날 것이라 추정가능하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근로빈곤층의 정의에 따라 공백 기간의 빈도로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공백 기간이 길어질수록 비경활빈곤층의 비중이 취업빈곤층, 경활빈곤층보다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다음으로 평균을 통해 여성 근로빈곤층의 정의에 따라 이들의 공백 기간에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살펴본 결과, 전체 여성 근로빈곤층의 공백 기간은 6.15년으로서, 이는 남성 근로빈곤층의 3.24년에 비해 2배 정도 높다. 공백의 수를 기준으로 할 때에는 전체 여성 근로빈곤층의 평균은 1.04개로 남성 근로빈곤층의 1.29개보다 낮았다는 것을 상기하면, 여성은 남성보다 직업 배열에 공백이 있는 비율은 낮게 나타나지만, 공백이 있는 경우 그 지속 기간은 남성보다 더 길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여성 근로빈곤층이 노동시장에 참여했다가 긴 공백 기간을 거친 후 재진입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한편 여성 근로빈곤층의 정의에 따른 공백 기간은 취업빈곤층이 약 7년, 경활빈곤층이 6.5년, 비경활빈곤층이 4.7년 정도로 나타나, 비경활빈곤층의 공백 기간이 가장 짧았다. 이는 공백의 수와 마찬가지로 비경활빈곤층의 노동시장 참여도가 낮은 것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할 수 있다.

<표 10> 여성 근로빈곤층의 정의에 따른 공백 기간의 빈도
(단위: 개수)

공백 기간	취업빈곤층		경활빈곤층		비경활빈곤층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0	29	26.6	4	14.3	47	52.2
1	7	6.4	3	10.7	7	7.8
2	6	5.5	3	10.7	6	6.7
3	6	5.5	5	17.9	6	6.7
4	6	5.5	2	7.1	0	0
5	5	4.6	0	0	2	2.2
6년 이상 ~10년 이하	13	11.9	4	14.3	11	12.2
11년 이상	37	33.9	7	25.0	17	18.9
평균 공백 기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7.23	7.388	6.46	7.089	4.73	7.430
전체	109	100	28	100	90	100
평균제곱(자유도)/F값			155.186(2)/2.857			

*: p<.05, **: p<.01, ***: p<.001

다음으로 이러한 결과가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는 지 살펴보는 지 살펴보았는데, 이 모형 또한 연령과 교육년수를 통제 변수로 투입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나 회귀분석의 전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¹⁸⁾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근로빈곤층의 정의에 따른 공백 기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 여성 근로빈곤층의 각 정의에 따른 공백 기간에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을

18)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 표준화 오차의 분포 및 정규확률플롯(p-p plot)을 통해 모형의 정규성을 살펴본 결과 모형이 정규성의 전제를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판단되어, 다시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산분석을 할 때 모형의 등분산 가정을 충족하는지 살펴본 결과, 유의확률 .614로 등분산 가정을 충족함을 확인하였다.

확인하였다. 이는 근로빈곤층의 정의에 상관없이 여성의 경우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노동공급이 단절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직업의 유지 및 전환

다음으로 여성 근로빈곤층의 정의에 따라 이들이 일했던 직업의 수가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겠다. 먼저 여성 근로빈곤층의 정의에 따라 이들의 직업 수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빈도를 통해 살펴본 결과, 직업의 수가 많아질수록 취업빈곤층과 경활빈곤층의 비중은 높아지는데 반해 비경활빈곤층의 비중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음으로 평균을 통해 살펴본 결과, 취업빈곤층의 평균 직업의 수는 2.19개로서 경활빈곤층의 2.18과 거의 차이가 없는 반면, 비경활빈곤층은 1.68개로서 취업빈곤층과 경활빈곤층보다 적었다. 이는 앞서와 마찬가지로 비경활빈곤층이 취업빈곤층과 경활빈곤층보다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정도가 낮은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표 11> 여성 근로빈곤층의 정의에 따른 직업의 빈도

(단위: 개수)

직업의 수	취업빈곤층		경활빈곤층		비경활빈곤층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1	29	26.6	5	17.9	44	48.9
2	39	35.8	15	53.6	33	36.7
3	32	29.4	7	25.0	11	12.2
4	9	8.3	1	3.6	2	2.2
평균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직업의 수	2.19	.928	2.18	.863	1.68	.776
전체	109	100	28	100	90	100
평균제곱(자유도)/F값			7.122(2)/9.569***			

*: p<.05, **: p<.01, ***: p<.001

그렇다면 통계적으로 분석했을 때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려 했으나 전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분산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¹⁹⁾. 분석 결과, F값이 9.569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그렇다면 근로빈곤층의 각 개념 가운데 어떤 집단에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일까? 이를 알아보기로 다중비교를 실시한 결과, 취업빈곤층과 비경활빈곤층, 경활빈곤층과 비경활빈곤층 사이의 평균 차이가 각각 .515, .501로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는 비경활빈곤층 보다 취업빈곤층과 경활빈곤층의 직업 수가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앞선 결과들과 함께 종합하면, 비경활빈곤층이 노동시장에서 일한 기간이 취업빈곤층과 경활빈곤층보다 짧기 때문에 직업 배열에서 거쳤던 직업의 수가 그만큼 적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²⁰⁾.

5. 결론

근로빈곤층의 정의에 따라 이들의 노동경험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노동시장 진입 이후 이들의 노동경험을 통해 살펴볼 때, 취업빈곤층·경활빈곤층·비경활빈곤층으로 정의되는 근로빈곤층의 특성은 동질적

19) 이 모형 또한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 표준화 오차의 분포 및 정규확률플롯(p-p plot)을 통해 정규성을 살펴본 결과 모형이 정규성의 전제를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판단되어, 다시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산분석을 할 때 모형의 등분산 가정을 충족하는지 살펴본 결과, 유의확률 .146으로 등분산 가정을 충족함을 확인하였다.

20) 한편, 근로빈곤층의 정의에 따라 직업 배열에서 이들이 일했던 직종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 남성과 마찬가지로 여성의 경우에도 근로빈곤층의 정의에 따라 이들의 특성에서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근로빈곤층과 비빈곤층의 직업 배열을 분석한 최옥금(2008)에 따르면, 여성 근로빈곤층은 입법공무원 및 관리자나 공무원에 종사했던 경우가 없었으며,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이 주로 ‘여성 중심의 일자리’에 종사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남성과 마찬가지로 여성 근로빈곤층도 불안정한 직종의 일자리에서 오랫동안 일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인가 아니면 이질적인가? 본 연구에서는 근로빈곤층의 정의에 따라 이들의 특성이 달라질 수 있고, 이에 따라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탈빈곤정책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근로빈곤층의 정의에 따라 구분하여 직업 배열을 비교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그렇다면, 이러한 분석결과는 어떠한 의의를 갖는가?

우선 본 연구는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는 근로빈곤층의 개념적 차이에 주목하고, 이들의 노동시장 진입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해 생애과정에서 노동경험이 어떠했는지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분석결과, 남성 근로빈곤층은 취업빈곤층, 경활빈곤층, 비경활빈곤층으로 구분할 때 일한 기간과 공백의 수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 근로빈곤층의 정의에 따른 직업 배열의 차이가 여성에 비해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았다. 이는 남성이 현재의 경제활동 상태에 상관없이 비교적 노동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일해 왔다는 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곧 이들은 노동시장에서 취업과 실업, 비경활 상태를 반복하면서 불안정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현재의 경제활동 상태에 따라 구분하여 이들의 직업 배열을 살펴볼 때 그 차이가 여성에 비해 뚜렷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취업빈곤층은 비경활빈곤층에 비해 비교적 안정적인 노동경험을 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여성 근로빈곤층은 남성 근로빈곤층의 직업 배열과 다른 양상을 보였다. 가장 큰 특징은, 여성은 직업 배열이 단절되는 경향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또한 비경활빈곤층과 취업빈곤층, 경활빈곤층 사이의 직업 배열 차이가 남성보다 더 뚜렷하게 구분되는 경향을 보였는데, 취업빈곤층, 경활빈곤층, 비경활빈곤층으로 구분할 때 일한 기간과 공백의 수 및 직업의 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곧 여성 비경활빈곤층은 취업빈곤층과 경활빈곤층보다 노동시장에 참여한 기간이 짧으며, 공백의 수와 직업의 수가 취업빈곤층과

경활빈곤층 보다 적었다. 이를 통해 비경활빈곤층은 취업빈곤층이나 경활빈곤층과는 다른 양상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곧 여성 비경활빈곤층은 노동시장에서 일시적으로 일한 뒤 퇴장하는 특성을 보이며, 따라서 취업빈곤층과 경활빈곤층 보다 노동경험이 적다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깊이 있게 다루지 않았던 근로빈곤층의 정의에 따른 특성의 차이에 주목하였으며, 각 정의에 따른 근로빈곤층의 노동경험을 비교함으로써 근로빈곤층의 개념에 따른 차이 및 이질성에 대한 논의를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근로연계복지의 목표 및 대상의 재설정과 관련된 논의에 함의를 줄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근로능력자로 분류된 빈곤층 가운데 현재 취업자와 가구 여건 곤란자, 환경적응자 등이 제외된 조건부 수급자를 대상으로 근로 능력과 자활 욕구 및 가구 여건 등을 고려하여 그 대상을 구분한 뒤 자활사업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자활사업은 우리나라에서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근로연계복지’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재 근로빈곤층 가운데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취업자들은 자활사업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는 전체 근로빈곤층 가운데 일부²¹⁾만이 자활사업에 참여하며, 이러한 참여자들도 노동시장에서 경쟁력이 취약한 사람들이라는 결과를 초래한다. 곧, 일을 통해 실질적으로 빈곤을 탈출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소득중점 목표’라는 목적을 표방하는 자활사업의 대상자로 포함되어 있다는 문제를 낳는다.

21) 2001년 10월의 경우 전체 자활사업 참여자 가운데 조건부 수급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68%였으며, 1년 뒤인 2002년 12월에는 약 67%, 2003년 3월에는 약 60%로 감소하였다(노대명 외, 2004b).

근로빈곤층의 직업 배열에 대한 본 연구의 분석 결과,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현재 취업하고 있는 취업빈곤층은 비경활빈곤층 보다 노동 시장에서 일한 기간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백의 수도 적은 것으로 나타나 비교적 안정적으로 일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이들의 노동경험은 노동시장 진입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비경활빈곤층과 경활빈곤층 보다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자활사업의 목표에 부합하는 대상은 현재의 ‘근로능력이 있는 미취업자’가 아닌 취업빈곤층일 것이다. 이는 현재의 자활사업 목표와 그 대상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렇게 취업빈곤층이 노동시장 진입 측면에서 ‘일을 통한 빈곤탈출’에 적합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취업빈곤층이 노동시장에서 더 좋은 일자리로 이동하여 빈곤을 탈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는 취약한 편이다. 따라서 현재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활사업을 중심으로 시행되는 우리나라 근로연계복지가 취업빈곤층에게도 ‘일을 통한 빈곤탈출’을 지원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역할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²²⁾. 종합하면, 근로빈곤층의 특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근로연계복지의 세부적인 정책에 대한 표적 집단과 목표를 재설정하는 것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특히 취업빈곤층이 더 좋은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이들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마련이 요구된다.

연구의 함의와 함께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연구대상으로 연령이 40세 이상에서 65세 미만인 사람만을 포함했다는 점이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대로 본 연구에서는 생애주기에서의 직업 배열을 분석하므로 직업력이 충분히 진행되지 않은 20대와 30대를 제

22) 물론 이를 위해서는 취업빈곤층에 대한 근로연계복지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자활사업 내에서 실시되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이들에 대한 별도의 제도가 요구되는지에 대한 논의도 요구될 것이다.

외한 것인데, 이들을 연구대상에 포함시켰다면 다른 분석결과가 도출되었을 수도 있다. 다음으로 연구 대상으로 노동시장에서 1년이라도 일한 사람들로만 한정했다는 것이다. 이는 TDA를 활용하여 직업 배열을 분석할 때 노동시장에 참여한 적이 없는 사례는 분석에서 제외되는 것과 관련이 있다. 그러나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탈빈곤 정책에서 중요한 이슈는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를 노동시장에 참여하도록 하는 ‘활성화 정책’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본 연구에서는 활성화 정책의 대상이 되는 비경제활동인구를 일부 분석에서 배제한 결과를 초래한다. 여성들이 이러한 비경제활동인구에 대부분 속해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이들의 특성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근로빈곤층의 분류와 관련된 것인데, 본 연구에서는 근로빈곤층을 취업빈곤층, 경활빈곤층, 비경활빈곤층으로 구분하여 이들의 직업 배열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근로빈곤층을 이보다 더 세분화하여 분류했다면 근로빈곤층의 특성을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한계들은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후속 연구를 통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구인회, 2002, “빈곤층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빈곤 이행: 경제위기 이후의 시기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제48권, pp.82-112.
- 금재호, 2003, 『일과 빈곤』, 제4회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 김교성·최영, 2006, “근로계층의 빈곤 결정요인에 관한 다층분석”, 『한국사회복지학』 제58권 제2호, pp.119-141.
- 김영옥, 1998, 『여성취업력의 동태적인 변화 분석』, 한국여성개발원.
- _____, 2002, “여성의 동태적 노동공급: 취업연속성과 첫 노동시장 퇴출 형태를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제25권 제2호, pp.5-40.
- 남춘호·이성호·이상록, 2006, “노동 빈곤층의 사회적 배제와 빈곤화 유형분석: 전주시 사례에 대한 생애사 분석을 중심으로”, 『산업노동연구』 제12권 제1호, pp.259-303.
- 노대명·최승아, 2004(a), 『한국 근로빈곤층의 소득·고용실태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노대명·박찬임·강병구·구인회·이문국·이병희·이인재·이찬진·홍경준·황덕순·송민아·최승아, 2004(b), 『자활정책·지원제도 개선방안 연구』. 보건복지부·노동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노동연구원.
- 보건복지부, 2007, 『2007년도 자활사업안내』.
- 이병희, 2005, “빈곤계층의 경제활동상태와 빈곤탈출”, 정진호·황덕순·금재호·이병희·박찬임 편, 『한국의 근로빈곤연구』, 한국노동연구원, pp.99-118.
- 이상은, 200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노동공급 효과”, 『한국사회복지학』 제56권 제2호, pp.71-91.
- 이태진, 2003, “근로빈곤계층의 빈곤요인분석”, 『보건복지포럼』 통권 77호, pp.51-71.
- 최옥금, 2005, “근로빈곤층의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 이동에 관한 연구: 임금일자리를 중심으로”, 『노동정책연구』 제5권 제1호, pp.1-42.
- _____, 2008, “근로빈곤층의 직업 경력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성균

관대학교.

- 한 준 · 장지연, 2000, “정규/비정규직 전환을 중심으로 본 취업력과 생애 과정”, 『노동경제논집』 23권, pp.33-53.
- 한 준, 2001, “최적일치법을 이용한 남녀간 직업 배열의 분석”, 『노동경제 논집』 제24권 제1호, pp.149-176.
- _____, 2002, 『사회이동 경로의 배열분석』, 제3회 한국노동패널학술대회 논문집.
- 홍경준, 2002, “한국 빈곤정책의 변화와 향후과제: 자활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제18권, pp.105-127.
- _____, 2003, “근로빈곤계층의 사회보장 적용실태와 사각지대 개선방안”, 『보건복지포럼』 통권 77호, pp.43-56.
- _____, 2004, 『빈곤에 대한 동태적 분석: 빈곤주기를 중심으로』, 제 5회 한국노동패널학술대회 논문집.
- _____, 2005, “근로빈곤층에 대한 탐색적 연구: 개념정의와 실태파악”, 『한국사회복지학』 제57권 제2호, pp.119-142.
- 홍경준 · 최옥금, 2005, 『근로빈곤층의 실태와 노동조합의 대응방안 연구』,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 Abbot, Andrew., 1983, "Sequences of Social Events: Concepts and Methods for the Analysis of Order in Social Process" *Historical Methods* 16(4): pp.129-157.
- Abbot, Andrew., and Angela Tsay., 2000, "Sequence Analysis and Optimal Matching Methods in Sociology: Review and Prospect." *Sociological Methods and Research* 29(1): pp.3-33.
- Blank, Rebecca M., 1996, *The Employment Strategy: Public Policies to Increase Work and Earnings*, in *Confronting Poverty: Prescriptions for Change*, edited by Sheldon H. Danziger, Gary D. Sandefur and Daniel H. Weinberg., Russell Sage Foundation: New York.
- Klein, B. W., and Rones, P. L., 1989, "A Profile of the Working Poor" *Monthly Labour Review*, October.

- Levitan, Sar A., Frank Gallo, and Issac Shpiro., 1993, *Working but Poor*,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Schiller, Bradley R., 2003, *The Economic of Poverty and Discrimination*, Pearson Prentice Hall.
- Wu, Lawrence L., 2000, "Some Comments on Sequence Analysis and Optimal Matching Methods in Sociology: Review and Prospect." *Sociological Methods and Research* 29(1):pp.41-64.

<Abstract>

An Analysis of Job Sequences
of the Working Poor
: Focused on Comparison according to
Definitions of the Working Poor

Choi, OkGeum*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differences in job sequences of the working poor which are defined as present labor market status: the employed poor, the economically active poor, and the economically inactive poor. Thus I utilized the KLIPS(Korea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and analyzed it by event sequence analysis. In addition, I carried out the Regression and the ANOVA to compare the job sequences according to the working poor's definitions. These results are as follow. First, the total years of working, and the number of gaps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the case of the male working poor. Second, the total years of working, the number of gaps, and the number of jobs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the case of the female working poor. That means that the employed poor's job sequences are statistically distinguished from the others. These results mean the employed poor have been working more, and have had more stability than the others. these results can give an implication in the

* Postdoctoral Research Fellow, Hallym University(okkum@hanmail.net)

adjustment of the workfare program in Korea.

key words: Definitions of the working poor, Job sequences,
Work experiences, The event sequence analysis, Workfare